

흐르는 물은 외롭지 않다 (물인문학)

이동률 저, 온출판



정일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장
우리학회 학술부회장

물은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의미를 놓치며 살아간다. 『물인문학』은 바로 그 익숙한 물을 낯설게 바라보며, 그 안에서 인간과 문명의 곁을 읽어내고자 한다. 이 책은 단지 수자원공학이나 물 관리에 대한 기술서가 아니다. 철학과 역사, 문학과 윤리,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성찰하는 인문학적 여정이다.

총 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물의 의미, 물이 전하는 지혜, 그리고 물을 통한 성찰을 차례로 다룬다. 1장에서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의 세계관부터 동양의 상선약수(上善若水)에 이르기까지, 물이 인간사에 어떠한 상징과 철학을 부여해왔는지를 살핀다. 물은 신의 도구이자 인간 세계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존재이며, 또한 하늘과 인간을 잇는 매개물이었다. 신화와 전설 속 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문명이 형성되는 중요한 순간마다 물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2장은 물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에 집중한다. 주역의 철학에서 물은 변화와 순환의 상징이며, 요산요수(樂山樂水)의 전통적 미의식에서는 인간의 감성과 자연의 조화를 보여준다. 또한 우물, 파동, 연못과 같은 다양한 물의 형상 속에는 흠어짐과 모임, 반복과 재생이라는 자연의 진리가 담겨 있다. 시련과 회복을 반복하며 인간은 성장하며, 물은 그 모든 여정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다.

3장에서는 물을 매개로 한 인간의 성찰을 촉구한다. 단순히 강을 ‘시(視)’하지 말고 ‘관(觀)’하라는 저자의 말은, 표면적인 관찰을 넘어선 본질의 통찰을 의미한다. 예측모델과 AI가 범람하는 시대에, 그 한계를 자각하고 겸손하게 자

JOURNAL & BOOK

연 앞에 서야 한다는 메시지는 오늘날 더욱 절실하다. 또한, 물을 둘러싼 자원 윤리와 공동체적 책임은 환경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이러한 내용을 이끌어낸 저자 이동률 박사는 그저 연구실의 학자에 그치지 않는다. 고려대학교에서 수자원공학을 전공한 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활동하며 국제적 감각을 쌓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37년 동안 치열한 현장 연구를 이끌었다. 「홍수대응골든타임확보연구단」과 같은 국가 R&D 사업의 단장을 맡아 재난 대응 기술을 선도했으며, 다년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맡았는가 하면 해외 ODA 사업과 국제학술회의 추진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가 남긴 283편의 논문과 수많은 수상은 단순한 업적을 넘어 한 시대의 수자원 연구를 대표하는 증표다.

『물인문학』은 바로 그런 삶의 궤적에서 태어난 책이다. 기술과 사유, 현장과 철학, 경험과 성찰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이 책은 물을 통해 인간을 이야기하고, 흐름 속에서 삶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 인문학은 인간의 ‘무늬’를 살피는 학문이라는 말처럼, 이 책은 물이라는 매개를 통해 독자로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그래서 이 책은 수자원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삶의 본질을 사유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도 열려 있다. 물을 사랑하는 사람,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 자연의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책에서 깊은 울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랜 세월 한 분야를 지켜온 저자의 목소리는 결코 가볍지 않다. 『물인문학』은 우리 모두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으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